

일본점령기에 대한 타이인들의 역사인식 : 역사교과서를 중심으로*

조흥국**

- I. 서론
 - II. 일본점령기 이전의 태국 근대사 및 태국-일본 관계사 개관
 - III. 태국의 역사교과서에 그려진 일본점령기
 - IV. 민족주의적 태국 학자들의 일본점령기에 대한 시각
 - V. 결론

I. 서론

태평양전쟁 시기 일본군의 태국 점령은 서구의 식민 지배를 받은 동남아의 다른 나라들에서와 같은 정도의 현대사적 의미를 갖지는 않는다. 특히 식민 통치를 겪지 않은 태국에서는 일본군의 점령이 동남아의 몇몇 나라들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유럽 식민국가에 대한 조직적인 민족주의적 저항 운동을 활성화시키는 것과 같은 역사적 과정이 전개되지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의 태국 점령은 태국 현대사의 전개에 있어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19세기 말부터 발전되어온 타이 민족주의¹⁾는

* 이 논문의 완성을 위해 도움을 준 익명의 논평자들에게 감사드린다.

** 부산대학교 국제대학원 교수

1) 여기서 말하는 타이 민족주의(Thai Nationalism)를 타이족을 태국의 정치경제적

일본군 점령기 태국-일본 동맹관계의 특수한 역사적 상황에서 파시즘의 형태로 더욱 강화되었다. 그러나 동시에 일본군의 점령은 근대 역사상 타민족의 지배를 한 번도 받아본 적이 없었던 타이인들의 자부심과 자존심에 상처를 주었다. 태평양전쟁 시기 이러한 역사적 경험은 타이인들의 일본인들에 대한 시각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쳤을 것이다.

타이인들의 일본인들에 대한 시각은 물론 태평양전쟁 이전부터 있었던 양국간 오랜 관계의 과정에서 이미 형성되어 왔다. 그리고 일본인들에 대한 타이인들의 시각은 태평양전쟁 이후에도 계속 변화·발전해 갔다. 태평양전쟁 이전과 전쟁 기간 중, 그리고 전쟁 이후 타이인들의 일본에 대한 시각에서 특히 타이 민족주의적 측면에서 바라본 시각은 태국의 역사교과서들에 나타난다. 본 연구는 일본군의 태국 점령과 그 점령이 태국에 미친 영향이 태국의 역사교과서에 어떻게 서술되어 있는지를 조사하고 그 서술의 내용을 분석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타이인들의 일본인들에 대한 시각을 부분적으로 이해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나아가서는 타이 민족주의의 한 측면을 살펴볼 수 있을 것이다.

태국 역사교과서의 서술을 분석하는 데 있어서 필자는 그 시기에 대한 서구 학계의 연구들이나 보다 비판적인 태국 학자들의 연구들에 나타나 있는 “일반적인” 해석에 종종 의존할 것이다. 그것은 이를 통해 태국 역사교과서의 서술의 민족주의적 시각을 보다 분명히 파악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여기에 이용되는 서구학계나 보다 비판적인 태국 학자들의 일본군의 태국 점령기에 대한 이해가 얼마만큼의 “객관성”을 갖는 것인지는 알 수 없다. 그것은 무엇보다도 “객관성”의 기준이 다른 모든 가치판단의 경우에서와 마찬가지로 고정될 수 없거나 명확하지 않기 때문이다. 여기에는 또한 일본군의 태국 점령에 대한 서구학계나 태국 학자들의 다양한 글들 가운데 필자가 보다 “객관적”이라고 보아 선택하는 필자의 주관적인 판단도 개입되어 있다. 그러나 어쨌든 한

및 사회문화적 발전의 구심점에 두어야 한다고 보는 타이족 중심적 사고의 전반적인 현상을 포괄하는 개념으로 사용한다.

가지 분명한 것은 위의 시기에 대한 서구학계나 보다 비판적인 태국 학자들의 “일반적인” 이해가 일본군의 태국 점령에 대한 일본학계 특히 일본의 민족주의적 시각이나 태국 역사교과서에 나타나는 시각과는 여러 부분에 있어서 다르다는 것이며, 따라서 태국 역사교과서의 서술을 평가하는 데 있어서 우리들에게 비교의 시각을 제공할 수 있다는 점이다.

이 글의 제2장에서 필자는 태평양전쟁 이전 태국의 근대사를 개관하고자 하며, 그 목적은 일본의 태국 점령기에 대해 타이인들이 갖고 있는 시각의 역사적 배경을 파악하려는 것이다. 제3장에서는 일본군의 태국 점령 시기에 대한 태국 역사교과서들과 역사 부교재의 서술을 평가할 것이다. 평가 작업은 역사교과서들과 역사 부교재의 해당 부분을 한국어로 번역하거나 그 내용을 요약 정리하며 해석하는 것으로 이루어진다. 내용에 대한 해석 작업을 할 때 해당 시기와 상황에 대한 “객관적인” 연구들을 참고할 것이며, 그 작업을 통해 무엇보다도 태국 역사교과서들과 역사 부교재에서의 서술의 “타이 민족주의적” 측면, 특히 태국이 동맹국 측에 가담한 것, 영국과 미국에 선전포고한 것, 프랑스령 인도차이나와 영국령 식민지로부터 영토를 도로 빼앗은 것 등에 대해 왜 구체적인 언급을 회피하는지, 그러한 행위들에 깔려 있는 다른 요인들에 대한 설명은 왜 없는지, 나아가서는 그 행위들을 왜 정당화하는지 그리고 그 시대에 일어난 타이 민족주의와 군국주의에 대해 왜 언급을 회피하는지에 초점을 맞출 것이다. 제4장에서는 몇몇 태국 학자들의 일본점령기에 대한 연구를 소개하며, 특히 그 연구에서 나타나는 타이 민족주의적인 시각을 분석할 것이다.

이 글은 전체적으로 태국의 역사교과서들과 역사 부교재가 일본의 태국 점령을 어떻게 서술하여 태국 국민들에게 이해시키려 하고 있는지를 분석하는 데 초점을 맞추었지만, 그 서술의 타이 민족주의적인 성격을 보다 선명하게 그리기 위해 필자는 종종 한국 역사교과서의 일제 점령기에 대한 부분과 비교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

이 글에서 필자는 ‘일본군의 태국 점령’, ‘일본점령기’ 등의 용어를 빈번하게 사용한다. 대부분의 타이인들은 태평양전쟁 시기 태국이 일본 군대에 의해 점령되어 있었다고 보지 않는다. 그들은 비록 태국이 일본의 군사적 무력에 의해 여러 차원에서 압박을 받은 것은 사실이지만, 양국간 관계는 다른 동남아 국가들과는 달리 어디까지나 동맹관계에 입각한 대등한 관계였다고 간주한다. 사실 외형상으로는 타이인들의 이러한 이해는 타당하게 보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필자가 굳이 ‘점령’이란 단어를 사용하여 표현하는 이유는 다음의 이유에서이다. 1941년 말 일본군이 태국에 진입한 것은 동남아 전체로 볼 때 명백한 침략적 의도에서 비롯된 것이었으며, 그 진입한 과정은 태국에 국한해서 볼 때 분명히 점령을 위한 공격의 성격을 띠고 있었다. 필자는 태국이 일본과 동맹관계를 맺은 것은 태국 정부가 “점령된” 현실을 인정하고 그 새로운 현실에서 태국의 주권을 지키고 나아가서는 태국의 이익을 도모하려고 했기 때문이라고 해석한다.

II. 일본점령기 이전의 태국 근대사 및 태국-일본 관계사 개관

제2차 세계대전 시기 일본의 태국 점령에 대한 태국 역사교과서의 평가와 타이인들의 일본에 대한 인식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외세침략과 독립 및 주권 유지에 대한 타이인들의 민감한 이해관계 그리고 그러한 이해관계의 바탕에 있는 타이 민족주의의 성격을 이해해야 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 이 장에서는 19세기 이후 서구 식민주의의 위협 가운데 근대화와 주권 유지를 위한 타이인들의 노력이 어떻게 전개되었는지 그리고 제2차 세계대전 이전까지 태국과 일본의 관계가 어떻게 발전되었는지를 개관하고자 한다.

동남아 세계는 19세기말까지 대부분 서양 열강들의 식민지가 되었다. 동남아 국가들은 더욱 풍부한 자본과 월등한 화력을 갖춘 서양인들

의 상업적 압박과 무력적 위세에 굴복치 않을 수 없었다. 태국이 식민 지배로부터 모면한 것은 대개 두 가지 요인으로 설명된다. 첫째는 태국이 영국의 식민지와 프랑스의 식민지 사이에 일종의 “완충국”으로서 놓여져 있는 지정학적 요인이며, 둘째는 19세기 후반부터 20세기초까지 태국 왕실이 주도한 현명한 국가 근대화의 노력이었다. 왕실 주도의 국가 근대화는 친서양적이고 계몽적인 몽꿋(Mongkut, 재위 1851~1868) 왕에 의해 착수되었다. 그는 중국, 일본, 미얀마 등 태국을 둘러싼 아시아의 여러 나라들이 서양 열강에 의해 식민지가 되거나 무력적 압력을 받아 문호를 개방하는 것을 보고, 1855년 영국과 소위 보우링(Bowring) 조약을 체결하여 자발적으로 태국의 상업적 문호를 개방했다. 몽꿋 정부는 개방 이후 서양국가들과의 외교적 관계를 맺고 서양인들을 고문으로서 정부에 고용하며 서양의 사회적, 정치적 제도들을 도입하고 시대에 뒤떨어진 전통적인 제도들을 폐지하는 등 다양한 측면에서 국가를 개혁하기 시작했다. 이러한 노력은 국가의 근대화라는 일반적 목적 외에 서양의 위협으로부터 나라를 보호한다는 구체적 동기를 갖고 있던 것이었다. 미얀마와 베트남 등에서도 이러한 노력이 있었으나 태국에 비해 그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는 데 모두 실패했다(Cho Hung-Guk 1987, 6-14).

국가의 근대화와 서양의 위협으로부터의 보호를 위한 실제적 부담은 몽꿋의 후계자인 쉐라롱콘(Chulalongkorn, 재위 1868~1910)에게 주어졌다. 라마5세로도 알려진 이 왕의 개혁은 무엇보다도 1892년 효율적인 정부 운영을 위한 행정개혁에서 절정을 이루었다. 그러나 쉐라롱콘 정부는 계속되는 유럽 열강들의 위협으로부터 나라의 독립을 지키기 위해 영토 할양이라는 값비싼 대가를 치러야 했다. 태국은 특히 1세기 이상 식민지로 갖고 있었던 라오스 땅을 1893년과 1904년의 두 번의 조약을 통해 프랑스에게 모두 빼앗겼다. 태국은 1907년에는 캄보디아에 있는 밧담방(Batdambang)과 시소폰(Sisophon)과 시엠리엡(Siemreap)까지도 프랑스에게 할양해 주어야 했다(조흥국 2002, 55-60).

태국의 근현대사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이념적 흐름의 하나로 민족주의를 중시할 필요가 있다. 식민 통치를 받지 않았던 태국에서의 민족주의는 반외세의 저항운동으로서가 아니라 민족적 및 국가적 정체성의 재발견과 확립의 성격을 띠었다. 절대왕정체제가 지속되고 있었던 태국에서 민족적 및 국가적 정체성에 대한 인식은 국가의 구심점을 이루어 왔던 국왕을 중심으로 일어났으며, 그것은 국가의 근대화를 강력히 추진하였던 쥘라롱콘 시대부터 시작되었고, 그 본격적인 추진자는 그의 아들이자 후계자인 와치라웃(Vajiravudh, 재위 1910~1925) 일명 라마6세였다. 영국에서 다년간 유학생활을 한 와치라웃은 등위 직후 서양의 관행을 좇아 처음으로 국경일들을 제정했으며, 각각 국가, 불교, 왕실을 상징하는 적색, 백색, 청색의 삼색으로 된 현행의 국기를 확정했다. 1917년 7월에는 독일에 대해 선전포고를 하고 제1차 세계대전에 연합국 측으로 참전했다. 타이인들의 민족주의적 정서를 고무하는 데 기여했다고 평가되고 있는 이런 제반 국내외 정책들을 통해 그는 타이인들에게 강한 애국주의를 고취시키기 위해 노력했다고 볼 수 있다.

이상 살펴본 민족주의 외에 20세기 전반 태국의 정치변동에 있어서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한 것은 의회민주주의에 대한 관심이었다. 19세기 말부터 논의되기 시작한 의회민주주의는 1932년의 쿠데타를 통해 절대왕정제가 무너지고 입헌군주제가 수립됨으로써 실현되었다. 쿠데타의 주역들은 프랑스 및 독일에서 유학한 소장 법학자와 장교들로서, 이들은 왕실 중심의 정부운영체제에 대해 강한 불만을 갖고 있었으며 민주주의만이 특권층의 권력남용에 종지부를 찍을 수 있고 국가 발전을 이룩할 수 있다고 보았다. 쿠데타가 당시 관료사회에서 많은 지지를 획득할 수 있었던 것은 왕실 정부가 1930년에 시작된 세계공황의 여파로 그 조세수입이 격감하자 1931/32년도 예산의 균형을 위해 공무원의 봉급을 대폭 삭감한 데 대한 관료들의 전반적인 불만이 있었기 때문이었다(Batson 1984, 187-245). 인민당(People's Party)을 결성한 혁명의 주역들은 1932년 12월 헌법을 제정하고 새로운 정부를 출범시켰으나, 1936년

군부가 쿠데타를 일으켜 정권을 잡아 그후 태국의 정치적 풍토의 한 중요한 현상인 군부쿠데타의 효시를 이루었다.

1938년에는 군부의 핵심인물인 피분송크람(Phibunsongkhram)이 집권하여 1944년 물러날 때까지 독재적인 정치방식과 친일적인 대외정책을 바탕으로 반서양적이고 군국주의적이며 무엇보다도 민족주의적인 정책들을 펼쳤다. 간단히 흔히 피분이라고 불리는 그는 1939년 태국의 국제적 공식 칭호를 “시암”(Siam)에서 타이인들의 민족과 문화를 강조하는 “타일랜드”(Thailand)로 변경했으며, 문명화된 새로운 태국의 건설을 위해 국민들이 준수해야 할 사회 및 문화지침들을 제정했다. 또한 반화교적인 경제정책을 실시했으며, 1940~1941년에는 프랑스령 인도차이나를 침공하여 이전에 내주었던 캄보디아 서부 지방과 라오스의 일부를 “회복”하기도 했다(Wyatt 1984, 252-257). 피분 정부는 일본과의 동맹관계의 결성으로 그 절정에 달하는 친일적인 성격과 위에서 언급한 제반 정책들로 인하여 파시즘 정권으로 규정될 수 있을 것이다.

이 장에서 끝으로 간략히 일본의 태국 점령기 이전까지 태국과 일본간 관계의 역사적 전개를 살펴보고자 한다. 양국간 접촉은 태국의 한 상선이 일본을 방문한 14세기말에 이미 나타났으나, 그것은 차후 지속되지 않았다. 양국간 관계가 활발해지고 긴밀해진 것은 16세기말, 특히 토요토미 히데요시(豊臣秀吉) 정부의 주인선(朱印船) 제도가 시작된 1592년경부터였다. 이 해부터 일본 상선들이 태국의 항구들을 방문하기 시작했으며, 태국 사료에 의하면 이미 1593년에 500명의 일본인들이 태국 정부에 고용된 한 일본인 지휘관 밑에서 당시 태국-미얀마 전쟁에서 용병으로 활동하기도 했다(Phonnnarat 1807, 197).

양국간 교류는 해외무역을 확대하려던 일본의 토쿠가와(徳川) 정부의 노력과 해외무역에 대한 태국의 아유타야(Ayutthaya) 조정의 적극적인 관심으로 인해 17세기초부터 본격적으로 전개되었다. 그리하여 양국간 사신이 교환되었고 무역상선들의 왕래가 활발하게 일어났다(Satow 1885, 145-167). 양국간 무역은 그러나 1630년대부터 무엇보다도 일본

정부의 쇄국 정책으로 인해 침체에 빠지기 시작했다. 특히 공식적인 무역은 거의 중단되었으며, 비공식적인 사무역도 17세기 후반부터는 특히 일본의 대외 무역을 독점하려던 네덜란드동인도회사의 방해 공작으로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다(岩生成一 1941, 86-91).

양국간 관계가 다시 활발해진 것은 19세기말이 되어서였다. 1887년 두 나라는 우호통상조약을 체결하여 공식적 외교관계를 수립했다. 태국은 당시 가능한 한 많은 열강들과의 관계를 수립하고 그들을 태국의 이해관계로 끌어들여, 어느 한 열강의 영향력에 태국의 국가적 운명이 좌지우지되지 않도록 한다는 외교정책을 추구하고 있었다. 이에 따라 태국 정부는 일본인들을 특히 법과 교육 분야에서 정부의 고문으로 고용했으며, 태국 학생들을 일본으로 유학을 보냈다. 태국과 일본간 관계는 20세기에 들어서서 외교적 분야뿐만 아니라, 경제 분야에서도 더욱 긴밀해졌다(Thawi 1981, 5-6).

III. 태국의 역사교과서에 그려진 일본점령기

이 장에서는 1940년경부터 1945년까지 일본이 일으킨 태평양전쟁과 관련하여 태국에서 전개된 상황에 대한 태국 역사교과서들과 부교재 등에서의 서술을 검토하고, 그 서술들을 당대 사료와 다른 보다 “객관적인” 연구들을 바탕으로 평가하고자 한다. 검토 대상인 태국 역사교과서는 중등과정 초급단계(대한민국의 중학교 1-2학년)에서 사용하는 ‘태국의 국제관계사’와 ‘민주주의시대 태국 역사’와 중등과정 제3단계(대한민국의 중학교 3학년)에서 사용하는 ‘우리들의 나라 제4권’이다. 이 교과서들은 모두 2001년도에 출판된 것으로, 태국의 최근 공식적 역사인식을 반영하는 것으로 간주될 수 있다. 부교재는 ‘중등과정 제3단계 사회과 시험준비 핸드북’으로 태국의 고등학교과정 입학자격시험 참고서라고 말할 수 있다.

본고의 주제와 관련하여 필자는 ‘우리들의 나라 제4권’에서 제2장 “랏파나꼬신 시대의 정치적 발전”의 마지막 절인 “1932년 통치체제의 변화 이후 현재까지 태국의 정치” 중 68쪽에서 70쪽까지의 내용을 번역했다. 이 부분은 1940~1941년 프랑스령 인도차이나로의 태국의 팽창, 1941년 말 일본군의 태국 진입, 태국-일본 동맹체결과 연합국에 대한 태국의 선전포고와 항일 자유타이 운동, 1944년 태국 정부의 정권 교체 등 1940년부터 1944년까지 태국 현대사를 모두 4개의 주제로 나누어 서술한 것이다. 필자는 이 내용을 다른 역사교과서들 및 역사 참고서의 서술과 비교하며, 역사교과서들의 “타이 민족주의적” 시각을 다른 역사 학자들의 “객관적인” 서술과의 비교를 통해 분석할 것이다.

1. 1940년 태국과 프랑스령 인도차이나간 전쟁

유럽이 1939년 독일이 일으킨 제2차 세계대전에 직면해 있는 동안, 태국은 중립주의 정책을 취했지만, 그러나 또한 외부로부터의 침략에 대해 국가의 주권을 수호할 준비가 되어 있었다. 프랑스는 1940년 6월 22일 독일에 패했다. 그 후 프랑스는 프랑스령 인도차이나 영토의 문제를 둘러싸고 태국과 분쟁을 갖게 되었고, 그것은 태국과 프랑스령 인도차이나간 국경 일대에서 군사력에 의한 무력 충돌이 일어나는 것으로까지 발전했다. 결국 태국 정부는 프랑스령 인도차이나에 대해 전쟁을 선포했으며, 1941년 1월 2일 양측간에 전투가 발생하였고, 이에 일본이 분쟁의 중재자로서 개입하기에 이르렀다. 회담의 결과 프랑스는 시소폰(Sisophon), 몽콘부리(Mongkhonburi), 프라따봉(Phra Tabong) 등으로 구성된 영토를 태국에게 반환하는 데 동의했으며, 태국 측은 프랑스에게 입힌 피해의 보상금으로 일정한 액수의 돈을 지불하기로 했다(Kranon 2001, 68-69).

위의 내용 중 중립주의와 관련해서 ‘민주주의시대 태국 역사’는 태국 정부가 제2차 세계대전 발발 후 국가의 이익을 위해 중립주의를 표방하여 어느 측에도 가담하지 않았으며, 차후의 상황에 대비하여 태국 국민들에게 애국심을 고취시키는 문화 증진정책을 전개했다고 말한다(Narong 2001b, 38).

그러나 태국의 대외정책은 엄격한 의미에서 결코 중립주의가 아니었다. 태국 정부는 적어도 1930년대 초부터 친일적 경향을 띠고 있었다. 1931년 일본이 일으킨 만주사변에 대해 국제연맹은 그 후 일본의 침략 행위를 비난하기로 결정했다. 그 결정에 대해 국제연맹 회원국들이 투표하게 되었을 때, 태국 정부는 아시아 국가들 가운데서는 유일하게 투표를 기권했다. 태국의 이러한 자세가 확인되자, 당시 영국과 프랑스 언론들에서는 태국이 장차 일본 편에 가담할 것으로 내다보았다(Flood 1967, 53).

1930년대 태국은 당시 아시아에서 팽창하고 있었던 군국주의 일본의 눈치를 살필 것인가 혹은 전통적인 우방국인 그러나 태국의 운명에 당장 영향을 미칠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영국과 미국의 편에 설 것인가의 양자택일의 기로에 서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 상황에서 태국 정부는 자국에 직접적으로 닥칠 수 있는 일본으로부터의 위협을 우선시했는데, 태국 정부가 일본을 두려워하고 있었다는 점은 당시 태국에 체류하고 있었던 서양 외교관들에 의해서도 감지되었다(Nuntana 외 1978, 58). 태국의 저명한 정치학자인 리킷 티라웨킨은 태국 정부의 그러한 외교적 자세를 “형세 관망”(sitting on the fence)의 기회주의적인 것으로 묘사한다. 그에 따르면, 이러한 행동 양식은 바람의 방향이 바뀌면 노선도 변경하는 타이인들의 전통적인 외교 정책인 “대나무 외교”(bamboo diplomacy)에 뿌리를 두고 있는 것으로, 그 궁극적 목표는 타이인들의 자주독립 유지였다(Likhit 1974, 44-48).

위의 번역된 역사교과서 내용 중 태국과 프랑스령 인도차이나와의 분쟁과 관련하여, ‘민주주의시대 태국 역사’는 태국 정부가 프랑스에게 선전포고하고 파병하여 1941년 1월에 오늘날 라오스에 있는 루앙프라방(Luang Prabang)과 참빠삭(Champassak)과 현 캄보디아의 뱃담방과 시엠리엠포를 점령했던 이유는 프랑스가 태국이 제시한 메콩강을 경계로 한 양국간 국경 재조정안을 거부했기 때문이라고 말한다(Narong 2001b, 37).

태국 역사교과서들은 이 분쟁의 배경에 당시 피분 정부의 팽창주의적인 군국주의가 있었으며, 이 영토들이 원래부터 태국 땅이 아니라 태국 역시 라오스와 캄보디아로부터 뺏은 영토라는 점을 말하지 않는다. 태국이 라오스와 캄보디아의 영토들을 차지한 것은 모두 랏파나코신(Rattanakosin) 왕조(1782년~현재)가 창건된 지 얼마 되지 않은 시점에서 대외적인 팽창정책을 추구하던 18세기말에 일어났다. 태국은 이 영토들은 1907년까지 모두 프랑스에게 빼앗겼지만, 이들에 대한 욕심을 그 후 결코 버리지 않았다. 사실 태국 국민들에게 있어서 이 “실지”(失地)의 회복은 그 “실지”들이 과연 태국 영토이냐의 역사적 정당성 문제를 떠나 민족적 자존심이 걸린 이슈였다. 피분 정권이 인도차이나로 팽창정책을 추구할 때 태국 국민들의 광범위한 지지를 받았던 것은 그러한 배경을 갖고 있었던 것이다. 또한 태평양전쟁이 끝난 다음에도 태국 정부가 “실지”들을 계속 보유하려고 애를 쓴 것도 같은 맥락에서였다. 태국은 이 영토들을 전후 프랑스가 태국의 유엔 가입에 거부권을 행사하겠다고 위협하자 결국 포기하고 만다(Charnvit 1974, 46).

태국 역사교과서들이 또한 침묵하고 있는 부분은 태국이 이 “실지”들을 “회복”하는 데 있어서 일본과의 관계에 크게 의존했으며, 이 인도차이나 사건으로 타이인들이 서구에 대한 자신감을 갖게 되었고 일본을 신뢰할 수 있는 우방국으로 간주하게 되었으며, 이로써 태국 정부와 일본간에 장차 긴밀한 협력관계를 위한 길이 닦였다는 사실이다. 피분은 1941년 3월경 그가 쓴 한 편지에서 나타나듯이 “실지”의 회복을 일본군의 도움으로 달성하려고 했다(Nuntana 외 1978, 59).

찬윳 교수의 해석에 따르면, 태국이 태평양전쟁 시기 일본과 동맹관계를 맺은 가장 중요한 배경 중 하나는 바로 이 1940~1941년 태국과 프랑스령 인도차이나간 분쟁이었다. 분쟁의 물리적 충돌의 과정에서 태국 군대는 일본으로부터 물자 특히 무기 공급을 받았으며, 그 분쟁의 중재 과정에서 일본은 분명히 태국 편을 들어주었다. 그에 비해 타이인들은 소위 “비행기 에피소드(aeroplanes episode)”에서 서양인들로부터 무시

를 당했다는 기분을 갖게 되었을 것이다. 그 사건의 전말은 대략 다음과 같다. 피분 정부가 미국의 한 민영 회사에 주문한 폭격기 10대가 방콕으로 오는 중 마닐라에 있었는데, 미국 정부는 그 납품을 중지시켰다. 미국의 그러한 결정은 한편으로는 비행기들이 차후 필리핀의 방어에 필요할 것이라는 계산과 다른 한편으로는 인도차이나에서 태국과 프랑스 간 분쟁 상황의 악화 때문이었다(Wyatt 1984, 256). 태국 정부에게 폭격기 10대를 판 나라는 그 상황에서 재빠르게 나선 일본이었다.

당시 방콕에서 반미 시위를 부추길 정도로 분노한 피분은 이 사건을 통해 서양 열강들에 대해 다시 한 번 실망을 느꼈을 것이며, 태국의 장차 국제관계에서 득이 될 것은 일본과의 관계뿐이라고 확신했을 것이다. 1940~1941년 경험은 태국과 일본간 관계의 진전에 큰 촉진제가 되었으며, 그 이후 태국의 지도자들은 일본의 “대동아공영” 및 “아시아인들을 위한 아시아”의 슬로건에 깊은 관심을 갖기 시작했다고 보인다(Chamvit 1974, 48-52). 태국 정부는 그리하여 1941년 8월 일본의 괴뢰정권인 만주국을 승인하고 그 이듬해에는 이른 바 대동아공영권에서 일본이 세운 난징(南京)의 중국 정부와 필리핀 정부와 미얀마 정부를 승인했다(Thawi 1980, 89).

태국의 역사교과서들은 밑에서 보게될 것처럼 제2차 세계대전 당시 태국을 점령한 일본에 대해 부분적으로 비판적인 자세를 보여준다. 그러나 태국의 일본에 대한 시각은 대부분의 경우 호의적이다. 역사교과서 가운데 하나인 ‘태국의 국제관계사’는 태국과 일본간 관계가 19세기 말 이후 꾸준히 이어져 1898년 양국간 대사 임명으로부터 발전했고, 1908년에는 양국간 “우호통상 및 선박 항해에 관한 조약”을 체결했을 때 일본이 서양열강들과 마찬가지로 태국 정부에게 치외법권을 요구했다고 쓰고 있다. 동일한 책은 이어서 태국 정부가 그 상황을 수용한 것은 “만약 태국이 장차 서양 국가로부터 강력한 압박을 받으면 일본이 같은 아시아 민족으로서 태국을 동정하여 태국을 도와줄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라고 말한다(Narong 2001a, 85). 여기서 우리는 적어도

1940년대 중엽까지 지속되는 일본에 대한 태국의 전통적 인식의 한 면모를 엿볼 수 있다.

2. 일본군의 태국 진입

세계의 상황이 긴장 상태에 놓이고 전쟁이 유럽에서 아시아로 확산되어 가는 동안, 태국은 중립주의 정책을 선포했다. 그러나 태국은 외부로부터 침공을 당할 시, 스스로를 방어하기 위한 준비를 했다. 태국의 지도자는 일본이 동아시아 지역에서 분명히 전쟁을 개시할 것을 예견하고 있었다.

1941년 12월 7일 일본대사 츠보카미는 일본이 미국과 영국에 대해 전쟁을 선포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음을 알리기 위해 일행을 거느리고 태국의 외무부에 와서 태국 외무부장관인 디렉 차이아남(Direk Chaiyanam)을 만났다(이 전쟁은 대동아전쟁이라고 부른다). 일본군은 영국의 식민지 영토를 공격하기 위해 태국을 경유하여 행군할 수 있기를 요청했다. 그러나 태국은 중립주의 정책을 취하고 있었던 연유로 그 요청을 거절했다. 그 결과 1941년 12월 8일 아침 태국에 상륙한 일본 군대와 의 충돌이 일어났다.

1941년 12월 8일 아침, 태국 정부는 타이인들의 생활과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 일본군에 대항하여 싸우는 것을 중지하기로 결정했다. 그리고 태국 정부는 일본 정부가 태국 정부에게 일본이 태국의 주권독립과 명예를 존중한다는 것을 서면 상으로 약속함에 따라 일본군으로 하여금 태국을 지나 행군하는 것을 허용하기로 결정했다(Kranon 2001, 69).

태국 역사교과서는 일본군의 태국 영토 진입이 타이인들이 원하지 않았던 하나의 침략적 행위임을 보여주기 위해 태국 정부가 당시 중립주의를 표방하고 있었으며 일본군의 태국 영토 상륙에 무력적인 저항을 했다고 말한다. 부교재인 ‘중등과정 제3단계 사회과 시험준비 핸드북’에서도 태국의 중립주의 표방을 강조하고 있으며, 특히 태국만의 동부 해안에 상륙한 일본군의 침략에 대해 태국의 “군대, 경찰, 청년들이 용감하고 결연히 저항하고 막았다”라고 쓰고 있다(Nikhom, 388).

실제로 일본군이 송클라(Songkhla) 등 말레이반도 동부 해안 지역

에 상륙했을 때, 예상했던 타이 국민의 열렬한 환영은커녕 오히려 비록 소규모이고 단기간이었지만 태국 군대와의 교전이 있었다. 그러나 캄보디아에서 들어온 일본군이 아무런 저항을 받지 않았던 것 등(Tarling 2001, 84) 전반적인 상황을 볼 때, 태국 역사교과서 및 부교재에서 말하고 싶어하는 태국 국민의 군사적 저항은 불과 몇 시간동안 일어난 극히 일시적 및 제한적인 것이었으며, 일본군은 비교적 쉽게 태국에 상륙했던 것으로 보인다.

태국 역사교과서는 일본 정부가 1941년 12월 7일 태국 정부에게 일본군의 태국 영토 사용에 대한 허락을 요구했다고만 쓰고 있다. 그러나 일본은 사실 그 당시 이 요구와 더불어 양국간 군사동맹 체결, 미국과 영국에 대한 태국의 선전포고 등 세 가지 선택안을 태국 측에 제시했다(Nuntana 외 1978, 64). 태국 정부는 일차적으로 첫 번째 안을 수용했으나, 하와이 진주만에 대한 일본의 기습과 두 척의 영국 전함의 침몰 등 태평양전쟁의 초기에서 일본 군대가 이룩한 재빠른 성공을 본 후, 일본이 전쟁에서 최종적인 승리자가 될 것임을 의심치 않아, 밑에서 보게될 것처럼, 12월말과 그 이듬해 초에는 나머지 두 가지 선택안도 모두 수용한다(Charnvit 1974, 53-54).

태국 역사교과서는 태국 정부가 1941년 12월 8일 일본군의 태국 상륙을 허용한 것은 태국 국민의 죽음을 막고 또 일본이 태국의 주권을 존중하겠다는 약속을 했기 때문이라고 말하지만, 이 부분에서도 태국의 저명한 정치학자인 리킷이 지적하듯이 역시 피분 총리의 타이 민족주의적 시각과 친일적 정책이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것으로 보인다(Likhit 1983, 8). 피분은 이미 1941년 12월 3일 내각회의에서 일본에 대항해서 싸우는 것은 타이인들의 숭한 인명 손실을 포함하여 태국에게 재난적인 결과를 가져올 것임에 비해, 일본과 연합하면 일본이 아시아에서의 전쟁에서 승리함에 따라 태국이 많은 실지를 회복할 수 있는 이점이 있다고 말함으로써 일본과의 동맹의 필요성을 역설한다. 또한 그는 12월 8일 내각회의에서는 태국이 일본으로부터는 바라던 것을 얻을 수 있었지

만 다른 나라들로부터는 아무 것도 얻지 못했다는 것, 그리고 태국이 중립으로 머물러 있을 수는 없으며 조만간 어느 쪽에 가담할 것인지를 결정해야 한다는 것을 말하면서, 세계의 정세를 살펴볼 때 일본이 유리한 쪽에 있으며 태국이 일본측에 가담하고 일본과 협력하면 이득을 볼 것이라는 결론을 내린다. 그의 이러한 결론은 당시 총 24명 장관 가운데 17명이 군부인사였던 태국 내각에 의해 무난히 수용되었다(Nuntana 외 1978, 60-72).

또 1941년 12월 8일 태국 정부의 결정에 있어서 일본이 태국의 주권을 존중하겠다고 약속한 것을 태국 역사교과서들이 강조하고 있지만, 태국의 저명한 사회비평가인 술락 시와락이 예리하게 지적하고 있듯이, 그 시점에 일본인들은 타이인들을 결코 동등한 파트너로 여기지 않았다(Sulak 1985, 7). 일부 태국 정치인들과 국민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다면, 그것은 당시 태국 내에서 일본인들의 오만한 행태와 일본인들과 타이인들간의 그로 인한 충돌을 고려할 때 한편으로는 그렇게 되었으면 하는 바램이었고, 다른 한편으로는 자기기만에 지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일본인들은 당시 태국에서 타이인들에게 물질적인 피해를 끼쳤을 뿐만 아니라, 오만하고 모욕적인 행동을 함으로써 그들의 적대감을 불러일으켰다. 1941년 12월 8일 태국 영토에 들어온 일본 군대의 병력은 총 약 5만 명으로, 이들은 진입 후 단기간 내에 태국 전역에 걸쳐 모든 전략 요충지들을 점령했다. 그들은 방콕에서 중화총상회를 비롯한 중요한 빌딩들을 자신의 목적을 위해 점거하여 임의로 사용했다. 당시 태국에 주재해 있었던 미국인 신문기자인 대럴 베리건(Darrell Berrigan)이 “태국의 항복은 현지 주민들을 어리벙벙하게 만들었다. [중략] 타이인들은 일본 폭격기들이 자신들의 머리 위에서 회전 비행하는 것을 보면서 눈물을 흘렸다”(U.S. Archives, “Free Thai Movement”, 1942/11/27, No. D.S.892.01/21, p.24, Thamsook, 44에서 재인용)라고 보고한 것처럼, 일본 군대의 태국 진입은 당시 태국 시민들에게 큰 충격과 분노를 주었다.

당시 태국 지식인층과 공무원들의 대다수는 일본인들을 두려워했으나, 동시에 그들에 대해 혐오와 적대감을 갖고 있었다(Thamsook, 43-44).

타이인들의 일본인들에 대한 감정은 1941년 12월 이전부터 좋지 않았다. 그 해 11월 26일자 태국 정부의 총리처에서 작성한 문서에 따르면,

일본인들은 태국 물품을 구입하거나 버스요금을 낼 때 엔화를 사용하는 등 많은 점에 있어서 오만불손하다. 그들은 식당에서 계산할 때에도 엔화로 지불한다. [중략] 일본인들은 담배꽂초를 여자들의 가슴속에 집어넣는 등 불쾌한 짓을 저지른다. 같은 이유 때문에 그들은 자신들이 다른 사람들에 비해 우월하다고 간주한다. [중략] 타이인들과 일본인들간의 분쟁은 거의 매일 발생한다(The File Department, Office of the Secretary-General to the Prime Minister, "The Conference Report of the Cabinet's Staff", 1941/11/26, Nuntana 외 1978, 54-55에서 재인용).

태국 역사교과서들과는 달리 한국의 역사교과서, 예컨대 『고등학교 국사』는 일제 시대 일본인들에 의한 한국의 피해를 매우 강조한다(국사편찬위원회 2002, 342-343). 태국 역사교과서들이 태국 내에서 일본인들로 인한 이러한 상황에 대해 침묵하고 있는 원인으로는 첫째 태국과 일본간 관계가 적어도 국가적 차원에서는 전통적으로 우호적으로 지속되어 왔으며, 둘째 일본은 태국과 제2차 세계대전시 동맹관계를 맺은 나라였고, 셋째 일본인들에 의한 '피해의식'이 태국의 경우 한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훨씬 적다는 점을 들 수 있을 것이다.

3. 태국-일본 동맹체결, 연합국에 대한 태국의 선전포고, 항일 자유타이 운동

1941년 12월 16일 재무부장관인 프리디 파놈용(Pridi Phanomyong)은 별세한 짜오프라야 요마랏(Chaophraya Yomarat)을 대신하여 국왕의 섭정에 임명되었다. 그 후 1941년 12월 21일 피본송크람 정부는 태국을 지키기 위해 태국과 일본간 우호조약을 맺기로 결정했는데, 그것은 태국과 일본간 협력과 같은 것이었다.

한편 브리디 파눔용은 일본에 저항하기 위하여 은밀하게 자유타이 운동을 결성하기 시작했다. 동시에 미국 워싱턴 주재 태국 공사인 세니 프라못(Seni Pramot)은 미국에서도 자유타이 운동을 결성한다는 것을 선포했다. 한편 피분송크람은 태국이 일본의 동맹국으로서의 지위를 가졌기 때문에 1942년 1월 25일 외교정책을 변경하여 영국과 미국에 대해 선전포고를 했다(Kranon 2001, 69-70).

피분 정부가 1941년 12월 8일 일본군의 태국 상륙을 허용한 후, 12월 21일 일본과 동맹조약을 체결한 것에 대해 ‘민주주의시대 태국 역사’ 역시 그 동기를 태국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었다고 말한다(Narong 2001b, 39). 당시 태국 정부가 일본과 동맹관계를 맺은 배경과 동기는 ‘사회와 시험준비 핸드북’에 더욱 상세하게 서술되어 있다.

일본은 자신이 군대를 일으켜 태국 영토에 상륙한 것에 대해 그것은 일본군으로 하여금 태국을 지나 미얀마와 말라야의 영국을 공격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태국은 저항을 중단했고 또한 일본이 태국과 협정을 맺어 태국의 독립과 주권을 존중할 것을 약속하자 일본군이 태국 영토를 통과하는 것에 동의했다. 그 시기 태국 정부에는 피분송크람이 있었는데, 그는 만약 태국이 일본과 계속 싸우면 태국의 군사력과 무기가 일본과 싸울 태세를 갖추고 있지 않기 때문에 태국이 더욱 큰 손실을 입게 될 것이라고 보았다. 이에 태국 정부는 일본에 대한 저항을 중단함으로써 일본의 제의를 받아들였다(Nikhom, 388).

이상 살펴본 역사교과서들과 사회과 참고서는 모두 태국-일본 동맹 조약 체결의 보다 근본적인 배경으로 위에서 살펴본 것과 같은 피분의 친일적, 군국주의적 성향을 드러내려고 하지 않으며, 태국이 동맹관계를 통해 일본이 승리했을 때 태국이 아시아에서 누릴 위상에 대한 기대를 갖고 있었다는 점에 대해서도 언급을 회피한다. 이들은 또한 당시 일본군이 태국 영토에 진입한 것을 포함한 일본의 모든 군사행동이 일본이 일컫는 대동아전쟁에서의 불순한 제국주의적, 패권주의적, 침략적 의도에서 나온 것임을 강조하지 않는다. 태국 역사교과서가 만약 이 마

지막 측면을 강조한다면, 그것은 그러한 일본과 연합한 태국의 역사적 과오를 공식적으로 인정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민족주의 사관에 서 있는 타이인들에게는 부담이 되는 부분일 것이다.

태국은 제2차 세계대전 시기 자신이 취한 행동 중 영국과 미국에 대해 선전포고한 역사적 사실을 증시하여 이에 대한 평가에 있어서 매우 조심스러운 모습을 보인다. 위에서 인용한 ‘우리들의 나라 제4권’은 간단히 태국이 일본의 동맹국이기 때문에 이 두 나라에 대해 선전포고했다고 쓰지만, ‘사회과 시험준비 핸드북’은 그 배경을 보다 상세하게 설명한다.

태국이 일본의 제의에 따르기로 동의하자, 일본은 협정에 따라 군대를 일으켜 태국 영토를 통과하여 미얀마와 말라야를 공격한 다음 태국 정부로 하여금 일본이 원하는 바에 따라 행동하도록 강요함으로써 태국의 내정에 간섭하기 위해 노력했다. 그 당시 연합국 측은 비행기를 출격시켜 방콕과 다른 주들의 행정수도들에 있는 전략 요충지들에 폭탄을 투하하였고, 이것은 태국에 많은 피해를 주었다. 그때 태국 군대는 연합국 측의 비행기에 맞서서 사격을 해야 했다. 이렇게 하여 1942년 1월 피본송크람이 이끄는 태국 정부는 연합국 측의 중요한 지도적 국가들인 영국과 미국에 대해 전쟁을 선포했다(Nikhom, 388).

이 책은 태국이 선전포고를 한 것이 한편으로는 일본의 정치적 압박에 의한 것이었으며, 다른 한편으로는 연합국 측과 어쩔 수 없는 전쟁관계에 들어간 결과라는 점을 암시한다. 태국 정부의 선전포고는 우선 19세기 중엽 이래 유지되어 온 태국과 영국 및 미국과의 긴밀한 관계를 고려할 때 대부분의 당대 타이인들뿐만 아니라 오늘날의 태국 국민들로서도 이해하기 힘든 뜻밖의 행동이었을 것이다. 게다가 선전포고는 특히 태국의 전통적인 우방국인 영국으로서는 하나의 배신행위였다. 영국이 것처럼 느꼈을 것이라는 점은 전후 영국이 태국에게 취한 태도에 나타났다. 태국 정부는 전후 국제사회로의 재편입을 위해 영국의 지지가 절대적으로 필요했다. 선전포고와 관련된 이처럼 복잡하고 미묘한

사정의 배경에서 우리는 위에서 본 책들의 조심스러운 역사적 변명을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그렇다면 태국 정부가 일본과 동맹관계를 맺고 영국과 미국에 선전 포고를 했을 때 과연 어떤 생각으로 그런 결정을 내렸을까? 우선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그런 결정이 내려진 것은 위에서 언급한 것처럼 당시 태국 내각의 거의 대부분이 군부인사였기 때문에 가능했다는 점이다. 태국 역사학의 세계적인 권위자로 널리 인정되는 미국 코넬대학교의 와이어트의 설명에 따르면, 여기에는 또한 피분 정부가 당시 태평양전쟁에서 일본이 승리할 것으로 판단한 점과 일본에 대해 적대하기보다는 우호적인 자세를 보여주어야지 태국의 독립과 태국 국민의 생명을 더욱 잘 지킬 수 있으리라고 판단한 점이 작용했을 것이다(Wyatt 1984, 257-258). 앞에서 이미 언급한 바 있는 전자의 판단은 하나의 사실로 받아들일 수 있는 것으로, 당시 태국 정부의 기회주의적 전략으로 이해된다. 그에 비해 위에서 인용한 '사회과 시험준비 핸드북'에서도 암시되어 있는 후자의 판단은 보다 추측적인 차원에서 이해되어야 할 것이다. 와이어트의 해석은 어쨌든 태국의 전통적인 유연 외교, 일명 "대나무 외교"의 연장선상에서 이해될 수 있다. 역시 비슷한 관찰을 하는 리킷의 해석에 따르면, 당시 피분 정부는 일본이 승리할 것이라는 확신 속에서 일본 측에 붙어서 유럽 식민 열강들에 "빼앗긴" 영토를 회복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태국이 동남아의 강국으로 대두할 수 있을 것이라는 계산 하에서 일본과 동맹을 맺고 영국과 미국에 선전포고를 했다(Likhit 1974, 45-46).

태국 역사교과서들과 역사 부교재들은 한결같이 제2차 세계대전 기간 타이인들이 자발적으로 자유타이(Free Thai, 타이어로 "세리 타이") 운동을 전개한 점을 강조한다. 특히 이 점과 관련하여 재무부장관으로서 피분 정부의 내각에 있다가 국왕의 섭정이라는 한직으로 밀려난 뿌리디 파눔용과 주미 태국 공사인 세니 뿌라못의 역할이 두드러지게 묘사된다. 예컨대 '사회과 시험준비 핸드북'은 뿌리디 파눔용이 피분 정

부의 연합국 측에 대한 선전포고에 서명하지 않은 점을 강조하며, 태국 국내에서 뿌리디가 그리고 미국에서 세니가 전개한 자유타이 운동에 대한 설명에 비교적 많은 지면을 할애하고 있다(Nikhom, 388-389). 그것은 태국이 일본과 동맹관계를 맺은 것과 무엇보다도 영국과 미국에 대해 선전포고를 한 것이 일본의 압박 때문이었으며 타이인들의 전체 의사가 아니었다는 점을 밝혀, 위에서 언급한 바 전후 국제사회로의 원만한 편입을 위해 필요했기 때문이다.

‘우리들의 나라 제4권’은 말하고 있지 않지만, 태평양전쟁 기간 태국과 영국간 관계에서 또 하나의 걸끄러운 경험은 태국이 영국령 식민지의 일부를 차지한 것이었다. ‘민주주의시대 타이 역사’는 이 사건에 대해 “1943년 8월 12일 일본 정부는 켈란탄(Kelantan), 프렝가누(Trengganu), 사이부리(Saiburi), 빠를리스(Perlis), 쟁둥(Kengtung), 판(Phan)을 태국에게 넘겨줌으로써 태국이 영토를 확장하는 데 동의했다”라고 간단히 쓰고 있다(Narong 2001b, 40). 켈란탄, 프렝가누, 사이부리, 빠를리스는 모두 태국-말레이시아 국경에 있는 지역으로 오늘날 말레이시아에 속해 있다. 쟁둥과 판은 오늘날 미얀마 영토로, 태국 서북부와 미얀마와의 국경 지방에 있다. ‘사회과 시험준비 핸드북’도 “일본이 영국으로부터 뺏은 켈란탄, 프렝가누, 사이부리, 빠를리스, 쟁둥, 판을 태국에 넘겨줌으로써 태국의 환심을 사기 위해 노력했다”고 말한다(Nikhom, 389).

그러나 역사교과서들과 부교재는 태국 정부가 이들 영토에 대해 최소한 부분적으로나마 오래 전부터 욕심을 품고 있었으며 미얀마의 쟁둥 지역에 대해서는 실제적인 군사적 침공을 했다는 사실에 대해서 입을 다물고 있다. 말레이시아와의 국경에 있는 영토들은 오랫동안 타이인들의 지배하에 있다가 1909년에 영국과의 조약으로 영국령 식민지가 된 땅으로(Wyatt 1984, 206-207), 위에서 본 프랑스령 캄보디아와 라오스에 있는 영토와 마찬가지로 타이 민족주의자들의 눈에는 태국의 “실지”(失地)였다. 미얀마의 쟁둥 지역은 민족적으로 타이족에 속하는 산(Shan)

족의 땅으로, 1930년대 말부터 1940년대 초까지 전개된 소위 판 타이 (Pan Thai) 운동의 타이 민족주의자들로서는 응당 타이인들의 세계에 포함되어야 할 땅이었다. 피분을 중심으로 한 쇼비니스트들이 추진한 판 타이 운동은 “타이”란 개념을 타이족과 언어적으로 연결된 라오스의 라오족이나 산족뿐만 아니라 언어적으로 직접적 관련이 없는 크메르족과 말레이족까지도 과거에 타이인들의 왕국의 지배하에 있었던 지역이면 상관없이 모든 민족들에게 느슨하게 적용했다(Tarling 1992, 309). 일본과 군사동맹을 한 태국의 군대가 1942년 5월에 미얀마의 산 주를 침공하여 쟁쟁 일대를 점령한 것은 이러한 역사적 배경에서 이해되어야 한다(Charnvit 1974, 59-60).

4. 타이의 정치적 지도자의 교체

어쨌든 일본이 일으킨 대동아전쟁이 끝나가고, 일본이 연합국 측에 반드시 패배할 것 같은 상황이 나타나자, 피분송크람은 1944년 7월 24일 총리직에서 물러났다. 국회가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두 개의 법안을 인준하지 않았고, 국회부의장인 쿠엥 아파이왕(Khuang Aphaiwong)이 총리에 임명되자, 1944년 8월 24일 피분송크람은 육군 총사령관과 군 최고사령관의 직위에서도 물러났다(Kranon 2001, 70).

피분이 1944년 여름에 총리직에서 물러난 것에 대해 ‘민주주의시대 태국 역사’는 피분이 수도를 펠차분(Phetchabun)으로 옮기려는 것과 관련하여 그리고 사라부리(Saraburi)에 불교 도시를 건설하려는 계획과 관련하여 두 개의 의안을 국회에 상정했으나, 국회가 이들에 동의하지 않자 총리직에서 떠났다고 말한다(Narong 2001b, 41-42). ‘사회와 시험 준비 핸드북’은 그 배경으로 당시 일본이 피분 정부로 하여금 여러 가지 경제적 이권을 일본에 넘기도록 압박을 가했기 때문에 피분이 여러 정치적 문제에 직면해 있었다는 점을 추가로 든다(Nikhom, 389).

피분은 천도의 계획을 이미 1943년 10월에 공식적으로 밝혔다. 천도의 실질적 의미는 지휘본부를 옮기겠다는 것으로, 피분이 그 장소를 굳이 방콕에서 북쪽으로 약 300km 떨어진 팻차분으로 잡은 것은 그곳에서 전시상황을 보다 잘 파악할 수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의 천도 의안은 1944년 7월말 국회의 의결을 통과하지 못했다. 이미 7월 9일 사이판섬이 함락했고, 7월 17일 그동안 피분 정권을 지지해 주었던 일본의 토쥬(東條) 내각이 사임했다. 그 이전부터 태국 국민의 신뢰를 잃어오고 있던 피분이 7월말에 국회에서 정식으로 거부된 것은 필연적이었다(Tarling 2001, 106).

IV. 민족주의적 태국 학자들의 일본점령기에 대한 시각

태평양전쟁 시기 태국의 대외정책과 관련된 논쟁점은 태국이 1941년 말에 일본과 동맹관계를 맺고 영국과 미국에 대해 선전포고를 한 것이 자발적이었는가 아니면 일본의 압박을 받아 선택의 여지가 없었기 때문이었는가 하는 것이다. 이에 대한 역사적 해석은 태국의 학자들 사이에서 다양하게 나타난다. 이 장에서는 태국 학계에서 이 문제에 대해 어떤 해석을 하고 있는지를 특히 타이 민족주의적 시각에 있는 학자들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일본의 메이지(明治) 대학교에서 수학하여 박사학위를 받은 타위 티라왕세리에 따르면, 태국과 일본이 1887년 우호통상조약을 체결한 이후 양국간 무역이 증대하고 국민들간 교류가 빈번해지는 등 양국 관계가 긴밀해졌다. 양국간 무역관계의 증대는 특히 제1차 세계대전을 계기로 크게 증대했는데, 그것은 전쟁의 발발로 인하여 유럽 국가들과 태국간 무역관계가 침체해진 틈을 타 일본이 태국의 시장에 진출하여 태국의 가장 중요한 무역 파트너가 되었기 때문이었다. 타위는 20세기 전반 갈수록 증대된 태국-일본간 관계가 1941년 12월 21일 태국이 연합국

측에 대항하는 전쟁에서 일본 측에 가담하는 동맹조약을 체결하고 이윽고 같은 해 12월 27일 미국과 영국에게 선전포고를 함으로써 그 절정에 달했다고 말한다(Thawi 1981, 5-6, 65).

타위는 19세기 말부터 20세기 중엽까지 태국과 일본간 관계가 상호 동등한 파트너 사이에서 우호적, 협력적인 차원으로 계속 발전된 것으로 간주하는 것 같다. 태국-일본 관계에 대한 친일적인 태국 학자들의 시각을 대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그는 그러나 1887년의 조약이 서양 국가들이 당시 태국 정부에게 강요하여 체결했던 것들과 마찬가지로 제국주의적 열강의 한 약소국에 대한 불평등조약이었다는 점을 언급하지 않는다. 타위의 친일적 시각은 태국이 1941년 말에 일본과 동맹관계를 맺은 원인들에 대한 설명에서 보다 뚜렷이 드러난다. 그에 따르면, 당시 태국과 일본간 동맹은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이유 때문에 필연적이었다. 첫째는 지정학적 요인으로, 태국은 그 지리적 위치가 태평양전쟁의 수행에 있어서 일본 군대에게 중요했을 뿐만 아니라, 전쟁 수행에 필요한 자원을 풍부히 보유하고 있었다는 것. 둘째는 정치사적 요인으로, 태국은 동남아에서 서양 식민지가 되지 않은 유일한 국가였기 때문에, 일본이 동남아 지역에서 서양국가들의 방해로 받지 않고도 자기편으로 끌어들이 수 있었던 유일한 나라였다는 점. 셋째는 국제정치적 요인으로, 태국이 독립국이었기 때문에 일본은 태국을 자신의 동맹국으로 획득함으로써 일본의 대동아공영권 건설 정책이 국제정치적 지위를 갖게될 수 있다는 계산을 갖고 있었다는 점. 이에 더하여 그는 피분 정부가 1941년 12월 21일 일본과 동맹하기 전에 서양 정부들에게 일본이 태국에 대해 군사적 침략을 하지 못하도록 개입해 줄 것을 요청했지만, 그 요청에 응한 서양 나라가 하나도 없었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 태국 정부가 자국 보호의 최선책으로 일본과 동맹한 것은 당연한 것이라고 주장한다(Thawi 1981, 193-194).

태국-일본 동맹의 필연성과 당위성 주장은 제2차 세계대전 시기 태국의 행동을 정당화하는 대표적인 타이 민족주의적 역사학자 중 한 사

람인 찬윗 까셋시리에게서도 만날 수 있다. 방콕 소재 탐마삿(Thammasat) 대학교의 역사학 교수로서 태국 역사학계에서 큰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는 찬윗은 태평양전쟁 시기 태국 정부가 동맹국 측에 가담한 것은 그럴만한 역사적 배경이 있었던 것이고, 또한 그것은 당시 세상이 민주주의 진영과 파시스트 진영으로 나뉘어져 있던 상황에서 태국 정부는 파시스트 진영에 미래가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라고 말한다(Charnvit 1995, 274).

태평양전쟁 시기 일본의 동맹국으로서의 태국의 행동과 일본의 행동에 대한 찬윗 교수의 평가는 한편으로는 그의 타이 민족주의적 시각을, 다른 한편으로는 태국과 일본간 전통적인 우호관계에 기초한 것으로 보인다. 주지하다시피 제2차 세계대전 기간 동남아시아에서 일본의 역할에 대한 평가는 ‘군국주의의 침략자’와 ‘아시아의 해방자’라는 두 가지 상반된 것으로 나타난다. 찬윗은 이 중 주로 서양 역사학자들이 제기하는 전자의 견해는 일본이 서양열강들간 질서 있게 분할된 식민지 영토를 군사적으로 침략함으로써 서양인들의 자존심에 큰 손상을 입혔기 때문에 생겨난다고 본다. 후자의 견해를 따르는 것으로 보이는 찬윗은 식민주의 시대 적지 않은 아시아의 지도자들이 일본을 ‘식민지로부터의 해방자’의 시각에서 바라보았으며, 그 대표적인 인물들인 인도네시아의 수카르노(Sukarno)와 미얀마의 아웅산(Aung San)은 식민지로부터의 “해방과 구국”을 바라는 가운데 일본과 협력했다고 말한다. 그에 의하면, 실제로 제2차 세계대전 후 서양열강들의 식민주의가 붕괴되고 동남아의 여러 나라들이 독립을 획득한 것은 일본군이 공격해 들어가 서양열강들의 식민 지배를 파괴한 결과였다(Charnvit 1995, 274-275).

이러한 시각을 가진 찬윗이 태국이 일본과 연합한 것을 정당화하는 것은 당연할 것이다. 그는 일본의 성공적인 산업 발전과 군사력 구축은 아시아 여러 나라들의 지도자들에게 깊은 인상을 주었으며, 특히 1905년 러시아에 대한 일본의 승리는 태국 지도층 인물들의 주목을 끌었을 것이라고 말한다. 그는 제2차 세계대전 시기 태국 지도자들이 가지고

있었던 일본에 대한 시각도 일본을 서양국가들과 대등한 아시아의 한 나라로 보는 당대 동남아의 다른 지도자들과 다를 바가 없었을 것이라고 추측한다. 그의 해석에 따르면, 태국은 종래 영국과 미국에 비중을 두어 왔던 자신의 대외정책을 일본이 20세기 이후 아시아에서 영국, 미국, 프랑스 등과 함께 하나의 열강이 되었기 때문에 이 새로운 상황에 조정할 수밖에 없었으며, 특히 1940년대 들어서서 일본이 서양에 대항하는 자세를 취하는 것이 분명해지자 일본의 영향력에 의지하면 영국과 프랑스 사이에서 압박 당하는 태국의 상황을 개선하는 데 있어서 더욱 유리할 것이라는 판단을 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이처럼 그는 태국이 일본을 “아시아의 빛”으로 간주하고 결국 태평양전쟁 시기 일본과 동맹 관계를 맺은 것은 역사적으로 타당하고 필연적이었다고 강변한다 (Charnvit 1995, 275-276).

찬윳는 한 걸음 더 나아가 민족주의적인 피분 정권이 1930년대 말에 출현한 것을 역사적으로 정당화한다. 그에 의하면, 서양에서 종래 피분 정권을 팽창주의적인 타이 민족주의 시대로 간주한 것은 태국이 서구의 적인 일본과 연합하여 영국과 미국에 선전포고를 했으며 심지어 영국과 프랑스의 식민지를 침공했고 이를 통해 유럽 열강들에게 굴욕감을 주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는 그러한 서구 학자들의 시각은 피분의 민족주의적 정책이 행해질 수밖에 없었던 태국의 국내 정치 및 경제적인 상황을 고려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비판한다. 이와 관련하여 찬윳은 1930년대 전세계적인 정치적 혼란과 경제적 위기 상황과 맞물려 태국 또한 정치적, 경제적으로 혼란하고 불안했으며, 특히 정부가 의회의 통제로 활동상 많은 제약을 받았다는 점을 든다. 그러한 상황에서 태국 사회가 안정되고 강력한 정부에 대한 요구를 갖게 되었고, 그에 따라 1938년 피분의 군부 정권이 탄생했다는 것이다 (Charnvit 1974, 25, 32-34).

찬윳의 친일적 타이 민족주의 시각은 또한 태평양전쟁 시기 태국-일본 관계가 태국 사회에 미친 영향에 대한 그의 평가에서 드러난다.

그는 일본이 태국에게 미친 가장 중요한 영향의 하나로 타이인들이 1940~1941년 프랑스령 인도차이나와의 분쟁을 통해 서양인들에 대해서도 이길 수 있다는 생각을 품게 되었다는 점을 든다. 즉 타이인들의 서양에 대한 인식에 있어서 근본적인 변화가 일어났다는 것이다. 여기에 덧붙여 그는 일본과의 동맹과 교류가 태국의 젊은이들에게 태국도 일본과 같이 군사적으로 강력하고 산업적으로 발전한 나라가 될 수 있다는 자신감을 불어 넣어주었다고 단언한다(Charnvit 1974, 56).

끝으로 찬윳은 일본이 태국과의 외교관계를 공사급 수준에서 대사급 수준으로 끌어 올려준 최초의 외국이며, 이것은 타이인들에게 심리적으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고 평가한다. 그에 따르면, 그동안 태국이 비록 독립국의 지위를 지킬 수 있었지만 서양열강들과의 관계에 있어서 항상 “제2등”(second class) 국가로 간주되었고, 타이인들 스스로도 자신들이 그렇게 취급된다고 느껴왔다. 서양 국가들과의 모든 외교적 관계가 그동안 공사급 수준에서 행해진 사실은 태국 국민들에게 있어서 국제적인 차별 대우의 한 표시로 받아들여져 민족적 수치와 모욕의 깊은 유감을 자아내 왔다. 찬윳은 태국 지도자들이 일본과의 대사급 외교관계 수립을 통해 오직 아시아인들끼리만 상호 동등한 지위를 인정한다는 점에 대해 확신하게 되었다고 본다(Charnvit 1974, 58).

태국과 일본간 관계를 타이 민족주의 시각으로 보는 또 다른 중요한 타이인으로 술락 시와락을 들 수 있다. 술락은 태국의 가장 저명한 사회비평가이자 사회운동가 중의 한 사람으로 특히 불교 사회운동을 이끌고 있으며, 지난 20여년간 태국 사회에 막대한 영향력을 떨쳐온 인물이다. 그는 태평양전쟁 시기 일본의 침략적 의도에 대해서는 강한 비판을 하고 있다(Sulak 1985, 7-8). 하지만 일본의 소카(創價)대학 비교문화연구소에서 발행하는 한 학술지에 1988년에 발표한 글에서 그는 태국이 만주사변을 일으킨 일본에 대해 당시 국제연맹의 회원국 가운데 유일하게 비난을 하지 않고 투표를 기권한 행동을 정당화한다. 그는 1932년 쿠데타를 통해 등장한 입헌군주제의 태국 정부가 일본을 탄핵하는

투표에서 어느 편에도 가담하지 않고 입장 표명을 유보함으로써 서양 정부들을 실망시켰지만, 이를 통해 새로운 태국이 이전에 왕실 정부가 했던 것과는 달리 무조건 서양을 따르지 않고 또한 일본 편도 들지 않는 자립적인 대외정책의 자세를 갖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려고 했다고 말한다(Sulak 1988, 13-14).

술락 시와락은 아시아에서 일본의 제국주의적 자세와 특히 태국과의 관계에서 일본인 우위의식을 바탕으로 접근해 온 것에 대해 비판하며 많은 타이인들이 일본인들을 불신해 왔다는 점을 지적한다. 그러나 그는 위에서 언급한 바 1933년경 태국 정치인들이 갖고 있었던 친일적인 경향을 비판하지 않는다. 그의 이러한 생각은 타이 민족주의적 시각을 바탕으로 한 것으로 보인다. 그에 비해 찬윳 까셋시리는 제2차 세계 대전시 태국-일본 관계에 대한 해석에서 친일적 시각과 타이 민족주의 시각을 모두 보여준다.

V. 결론

일본이 1941년 12월에 태국에 대한 침공을 개시하자, 태국 정부는 일본과 군사동맹을 맺고 태국 영토를 일본군의 기지로 내어주었을 뿐만 아니라 그 이듬해 1월에는 일본과 보조를 맞춰 미국과 영국에 대해 선전포고까지 했다. 태국 정부의 이같은 행동결정은 일본이 결국에는 전쟁을 이길 것이라는 계산 하에서 행해진 것이었으며 그것은 동시에 피분 총리의 파시즘적 정치관에 상응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피분 정부의 일본과의 연합정책은 태국의 적지 않은 정치인들로부터 반발을 샀다. 특히 주미 태국 공사였던 세니 뿌라뭇은 미국에 대한 태국 정부의 선전포고를 불법적인 것으로 간주하여 그것을 미국 정부에 전달하는 것을 거절했다. 그리고 그는 미국의 지원 하에 자유타이 운동을 전개했으며 태국 국내에서 역시 자유타이 운동을 전개한 뿌리디 파눔용 등 국내의

인사들과 함께 반 피본 네트워크를 형성했다.

바로 이 점에서 일본의 태국 점령에 대한 역사적 평가가 엇갈린다. 즉 한 쪽에서는 일본을 전통적인 동맹국 및 우방국으로 간주하며 양국 간 우호적 관계를 중시하여 일본 점령의 제국주의적 측면을 그다지 부각시키지 않으려고 한다. 다른 한 쪽에서는 보다 객관적인 입장에 선 학자들의 견해로서, 일본의 파시즘적 의도를 중시하고 점령을 통한 태국의 피해를 강조한다. 이 중 전자의 입장이 태국 역사학계에서 우세하며, 그 입장은 태국의 역사교과서들에서도 반영되어 있다. 그에 비해 후자의 입장은 위에서 본 것처럼 태국의 역사교과서들에 의도적으로 가려져 있거나, 드러나 있더라도 일본에 대한 비판보다는 타이인들의 활동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자유타이 운동으로 대표되는 항일운동에 대한 태국 역사교과서들의 서술에서 나타나는 이 점은 특히 한국 역사교과서와의 비교를 통해 보다 분명해진다.

한국의 국사교과서에서 일제 시대에 관한 부분의 거의 대부분 지면은 항일의병 투쟁, 독립협회의 활동과 애국계몽 운동, 3·1운동, 대한민국임시정부의 활동과 기타 국내외 항일독립 운동에 관한 서술로 채워져 있다(국사편찬위원회 2002, 336-348). 두 나라의 역사교과서들이 항일운동만큼은 모두 강조하는 데 있어서는 공통적이지만, 그러나 그 동기에 있어서는 섬세한 차이가 있음을 중시해야 한다. 필자가 볼 때, 한국의 경우 거기에는 일본에 대한 한국인들의 강렬한 적대 의식이 깔려 있는데 비해, 태국의 경우 자신들이 일본에 무조건 영합하지 않았다는 것을 보이기 위해 노력하는 것 같다. 이 차이에 대해 조금 더 설명하면, 한국의 경우 한일 간 민족적, 문화적, 역사적으로 상호 보다 대립적인 특수관계에서 민족주의적 항일운동이 보다 중시되어 다루어질 수밖에 없다. 그에 비해 그러한 민족적 및 역사적 관계의 배경이 없는 태국-일본 관계의 경우 타이인들이 항일운동을 강조하는 것은 당시 태국 정부가 맺었던 태국-일본 동맹관계가 태국 국민의 일반적 의지에 따른 것이 아니라는 것, 그리고 태국은 전통적으로 독립국가로서 자신의 의지대로

역사의 길을 걸어왔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것으로 해석된다. 두 나라의 항일운동은 모두 민족주의 정신에서 나온 것임에 틀림없다. 그러나 한국 역사교과서의 경우 민족주의 발로는 일본에 대한 적대의 방향으로 묘사되어 있는 반면, 태국의 경우 그것은 타이 민족 스스로의 위상에 더욱 많은 초점이 맞추어져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 글에서 살펴본 것처럼, 태국 역사교과서들과 역사 부교재의 일본 점령기에 관한 부분의 성격을 정확히 이해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세 가지 측면을 고려해야 한다. 첫째 당시 태국 정부를 이끌었던 피분이 타이 민족주의적 시각과 친일적 성향을 지닌 인물이었다는 점, 둘째 태국과 일본간 전통적인 관계가 적어도 국가적 차원에서는 항상 우호적으로 지속되어 왔다는 점, 셋째 태국이 서양 국가들, 특히 영국과의 관계를 매우 중시했으며 무엇보다도 제2차 세계대전 후 국제사회에서 서양 국가들과 동등한 주권국가로 인정받는 것을 중시했다는 점.

이 중 두 번째 측면은 태국 역사교과서의 일본군의 태국 점령에 관한 서술에서 일본에 대한 강한 비판 의식이 나타나지 않는 것에 영향을 미쳤을 것이다. 그리고 여기에는 타이인들이 태국이 일본에 의해 점령되었거나 식민지화되었다고 여기지 않는 인식도 작용했을 것이다. 이러한 점들은 또한 태국에서 자국의 역사와 민족에 대해 자부심을 갖고 있는 민족주의적인 역사학자들과 지식인들의 태국-일본 관계에 대한 인식에도 영향을 미쳤다고 보인다. 그 대표적인 인물이 태평양전쟁 시기 태국-일본 관계에 대한 해석에 있어서 일본의 입장을 이해하려고 하고 일본에 협조적이었던 1938~1944년간의 피분 정부의 대외정책을 정당화하는 찬윳 까셋시리라는 것은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다. 타이인들의 역사인식 세계에 막대한 영향력을 발휘하는 찬윳과 같은 학자가 이같은 인식을 전지하는 한 태국의 역사교과서들에 나타나 있는 것과 같은 타이 민족주의 시각과 일본 군국주의의 침략 행위에 대한 미온적인 비판은 수정되기 어려울 것이다.

참고문헌

1. 역사교과서 및 부교재

- 국사편찬위원회 편. 2002. 『고등학교 국사』. 서울 : 두산.
- Kranon Kongthammachat et al. 2001. *Prathet khong rao 4* [우리들의 나라 제4권]. Matthayom Sueksa Thi 3 [중등과정 제3단계]. 13th Print, Bangkok : Akson Caroenthat.
- Narong Phuangphit, ed. 2001a. *Prawattisat khuan samphan rawang prathet khong thai* [태국의 국제관계사]. Radap Matthayom Sueksa Ton Ton [중등과정 초급단계]. Bangkok : Akson Caroenthat.
- Narong Phuangphit, ed. 2001b. *Prawattisat thai yuk prachathipatai* [민주주의시대 태국 역사]. Radap Matthayom Sueksa Ton Ton [중등과정 초급단계]. Bangkok : Akson Caroenthat.
- Nikhom Sumongkhon. 연도미상. *Khu mue triam sop sangkhom sueksa m. 3* [중등과정 제3단계 사회과 시험준비 핸드북]. Bangkok : Hi-Ed Publishing.

2. 일반문헌

- 조흥국. 1992-1993. "태국의 1885년 개혁건의문 분석." 『한국태국학회논총』 5.
- 조흥국. 2002. "메콩강의 경제적 잠재력과 유역국가들의 상호관계에 대한 역사적 고찰." 조흥국 외. 『메콩강과 지역협력』. 부산외국어대학교 출판부.
- Banyat Surakanvit. 1983. "Thai People's Attitude Towards Japan : Heart to Heart or Skin to Skin Relations." Bangkok : Japanese Studies Center, Thammasat University. Monograph Series No. 3.
- Batson, Benjamin A. 1984. *The End of the Absolute Monarchy in Siam*. London : Oxford University Press.
- Chamvit Kasetsiri. 1974. "The First Phibun Government and Its Involvement in World War II." *Journal of the Siam Society* 62(2).
- Cho Hung-Guk. 1987. "Die thailändische Denkschrift des Jahres 1885 und ihre historische Bedeutung." M.A. thesis, Hamburg Universität.
- Flood, Edward Thadeus. 1967. "Japan's Relations with Thailand 1928-1941." Ph.D. Diss., Washington University.
- Likhit Dhiravegin. 1974. "Thailand's Foreign Policy Determination." *Sangkhomsat*.

- Likhit Dhiravegin, 1983. "Thai-Japanese Postwar Relations," Bangkok : Japanese Studies Center, Thammasat University, Monograph Series No. 3.
- Nuntana Kapilakanchana and Phuangphet Suratanakawikun and Supatra Nilwatchala, 1978. "The Relationship between Japan and Thailand 1932-1945," Bangkok : Institute of Asian Studies, Chulalongkorn University.
- Satow, E. M. 1885. "Notes on the Intercourse between Japan and Siam in the Seventeenth Century," *Transactions of the Asiatic Society of Japan* 13.
- Sulak Sivaraksa, 1985. "Japan and Southeast Asia : Forty Years Ago and Now : A View from Thailand," *IHJ Bulletin* 5(4).
- Sulak Sivaraksa, 1988. "Thai Thoughts on the One Hundredth Anniversary of Diplomatic Relations between Japan and Siam," 『比較文化研究』 5, 創價大學比較文化研究所.
- Tarling, Nicholas, ed. 1992. *The Cambridge History of Southeast Asia, Volume Two : The Nineteenth and Twentieth Centuries*, Cambridge : Cambridge University Press.
- Tarling, Nicholas, 2001. *A Sudden Rampage : The Japanese Occupation of Southeast Asia 1941-1945*, Honolulu : University of Hawaii Press.
- Thamsook Numnonda, 연도미상. "Thailand and the Japanese Presence, 1941-45," Singapore : Institute of Southeast Asian Studies, Research Notes and Discussion Series No. 6.
- Wolters, O. W. 1968. "Ayudhya and the Rearward Part of the World," *Journal of the Royal Asiatic Society* 3(4).
- Wyatt, David K. 1984. *Thailand : A Short History*, New Haven : Yale University Press.
- Chamvit Kasetsiri, 1995. *Prawat kan muang thai 2475-2500* [1932-1957년 태국 정치사], Bangkok : Munnithi Khrongkan Tamra Sangkhomsat Lae Manutsayasat.
- Phonnnarat, Somdet Phra, 1807. *Phraratcha phongsawadan krung si ayutthaya chabap somdet phra phonnnarat wat phra chetuphon* [프라챳뚜폰 사원의 승려 폰나랏바 아우타야 연대기], 4th Edition(1971), Bangkok : Khlung Withaya.
- Thaemsuk Numnon, 1982. "Thai kap yipun samai songkhram lok khrang thi song : muang mit rue muang khuen? [제2차 세계대전 시기 태국과 일본 : 우방국인가 식민지인가]," *Thai-Japanese Studies* 4(2).
- Thawi Thirawongseri, 1980. "Thai kap wongphaibun maha esia burapha nai

samai songkhram lok khrang thi song [제2차 세계대전 시기 태국과 대
동아공영권.] *Esiathat* 1(2).

Thawi Thirawongseri. 1981. *Samphanphap thang kan muang rawang thai kap
yipun* [태국과 일본간 정치적 관계]. Bangkok : Thai Wathanaphanit.

岩生成一. 1941. “泰人の對日國交貿易復活運動.” 『東亞論叢』4.

Thai Perception of the Japanese Occupation Expressed in History Textbooks

CHO Hung-Guk

Professor,
Graduate School of International, Pusan National University

The experience of the Japanese occupation in Thailand during the Pacific War has a historical meaning different from the ones in other Southeast Asian countries which were under Western colonial rule. In Thailand, for example, the Japanese occupation did not generate nationalistic anti-colonial movement, which is an important feature of the modern history in some Southeast Asian countries.

The Japanese occupation of Thailand has an important meaning in the modern Thai history, especially in terms of Thai nationalism which seems to have been affected in two ways. On the one hand, Thai nationalism has developed into a fascistic form during the period of the Thai-Japanese military alliance. On the other hand, the nationalistic pride of the Thai who have never experienced a foreign rule in the modern history was hurt.

The historical meaning of the Japanese occupation in terms of Thai nationalism is reflected in Thai history textbooks. To understand the historical meaning, it seems necessary to examine how the influences of the Japanese occupation upon Thai society

are described in Thai history textbooks and to analyse the descriptions. This study can help us to understand Thai view of the Japanese, partly at the least.

To analyse the descriptions of the period of the Japanese occupation in Thai history textbooks, the following three aspects are to be considered: firstly, the then prime minister Phibun was a man of Thai nationalism and pro-Japanese; secondly, the traditional relations between Thailand and Japan were maintained friendly at the official level; thirdly, Thailand attached great importance to relations with European countries, not least the Great Britain, and tried to be acknowledged as an equal sovereign nation to Western nations after the Second World War.

The second aspect seems to have influenced Thai history textbooks to deal the Japanese occupation not so critically as Korean counterparts. The Thai people generally think that their country was never occupied or colonized by the Japanese. This fact seems to have also contributed to the generous view of the Thai of the Japanese. Nationalistic Thai scholars and intellectuals are even proud of Thai-Japanese relations during the Pacific War.

Keywords: Chamvit Kasetsiri, Free Thai Movement, Japanese Militarism, Japanese Occupation, Phibun Songkhram, Pridi Phanomyong, Thai Nationalism